

M **재테크**
Money

특정 업종주에 연동해 수익이 결정되는 섹터 상장지수펀드(ETF)가 20일 국내에서도 첫 선을 보인다.

ETF는 적은 비용으로 유망 업종에 투자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주식시장을 통해 처분해 현금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이 일반 액티브 펀드에 비해 낮고, 특정 업종에 집중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도 일반 펀드에 비해 클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절한 목표 수익을 정하고 자산배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적은 비용으로 유망업종 집중 투자

20일 국내 첫선...차·반도체·IT 등 5개업종 투자 위험 분산효과는 제한적...자산배분 차원 접근을

◇섹터 ETF는 일반적으로 개별 주식에 비해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추려는 투자자를 위해 고안된 상품이다. 따라서 상승기에 접어들면 시장에서 공격적인 액티브 펀드들이 시장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을 경우 대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시장에는 저평가된 종목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섹터 ETF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섹터 ETF는 기존 ETF와 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거래되지만 코스피200 대신 5개 개별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섹터 ETF가 추종하는 섹터지수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산정하는 자동차(KRX Autos), 반도체(KRX Semicon), 정보기술(KRX IT), 은행(KRX Banks), 건강관리(KRX Health Care) 등 5개다.

삼성투신운용, 우리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거대사 투자를 통해 섹터지수 운용권을 부여받은 3개 운용사는 오는 20일 모두 10개의 섹터 ETF를 상장한다.

삼성투신운용은 자동차, 반도체, 건강관리, 은행 등 4개, 우리자산운용은 건강관리, 은행, 정보기술 등 3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 건강관리, 은행 등 3개 섹터의 ETF를 상장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비중 조절 등 장점=섹터 ETF는 개별 종목이 아닌 업종에 투자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삼성전자와 같은 고가주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섹터 편입종목 전반에 고루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별종목 투자에 비해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당업종의 비중을 줄이

■ 섹터 상장지수펀드(ETF) 투자해 볼까

지수명칭	편입 종목
KRX Semicon	한미반도체, 케이씨텍, 삼성테크윈, 신성이엔지, KEC, 삼성전자, 하이닉스
KRX Autos	금호타이어, 대우정밀, 현대오트빗, 한국단자, 인지켄트롤스, 한라공조, 동양기전, 현대모비스, 평화홀딩스, 한국프렌치, 에스엘, 현대차, 카스코, 대우차판매, 쌍용차, 넥센타이어, 대원산업, 기아차, 한국타이어
KRX Health Care	대웅제약, LG생명과학, 한미제약, 공동제약, 한미약품, 일양약품, 녹십자, 삼진제약, 보령제약, 영진약품, 일성신약, 부광약품, 종외제약, 동아제약, 일동제약, 유한양행, 동화약품
KRX Banks	하나금융지주, 국민은행, 신한지주, 우리금융, 기업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
KRX IT	LG전자, 팬택엔터테인먼트, 현대오트빗, 엔씨소프트, LGPL, 신도리코, 삼성테크윈, 전기조차, 삼성전자, 대덕전자, 삼성SDI, LS전선, 대한전선, 금호전자, 하이닉스

거나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섹터 ETF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인덱스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도 싸다. 섹터 ETF의 보수율은 0.5% 안팎으로 인덱스펀드의 평균 보수율 1.5%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낮다.

◇고수익 노린 '물뽕'식 투자는 위험=다만 특정업종에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 비해 위험 분산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수익성 제고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면 위험관리 기능은 일반 지수 펀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섹터 ETF는 고수익을 노리는 '물뽕'식 투자보다는 적정 기대수익을 달성을 목표로 한 자산배분 차원의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 또 투자대상 섹터의 수익률이 다른 섹터에 비해 장기간 뒤처지고, 개선 가능성도 작다면 투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펀드평가 이동수 애널리스트는 "투자대상 섹터 주가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경우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섹터 ETF는 액티브펀드에 비해 기대 수익률이 낮고 자산 분산 효과는 적다"고 지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리인상 행진 언제까지?

美 FRB 중단시점 놓고 고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가 금리인상 중단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음이 FRB 지도부에 의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가중이라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발언해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후 그것이 중단될 시점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전 바이어스 이사는 6일 금융인 모임에 참석해 질의 응답하면서 "금리를 얼마나 더 인상해야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 "현재 (FRB 내에도)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차례의 금리 인상이 아직도 효과를 내는 중이라고 본다"면서 FRB가 "현재 경제지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캔자스연방준비은행의 토머스 호너 총재도 또다른 금융인 모임에 참석해 "FRB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도 "솔직히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몇달 정도는 더 봐야한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폴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 금리 인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FRB 지도부가 이처럼 인플레이션 대응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FRB가 '중립금리'에 도달할 시점이 예상됐던 상황이라면 지난 달 10일의 FOMC 회의록도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립금리란 성장을 부추기면서도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금리로 월가에서는 5% 내외라는 관측이 중론이 됐다. FRB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FOMC 회의 때마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5%다. FRB 규정에 따라 6월 공개된 5월 FOMC 회의록은 인플레이션을 위해 추가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결국 합의는 했으나 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을 몇몇 멤버들이 강조했음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공동 주최로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공투자 전략' 공개 강좌에 참석한 시민들이 투자 전략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펀드 중심 금융자산 운용 적극 나서라"

광주일보·투자자교육협 '성공투자 전략' 공개강좌

미래 자산설계 및 성공 투자전략 공개 강좌가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강좌에서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강창희소장은 '저금리 시대의 자산 운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저축의 시대가 끝나고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저금리 시대의 올바른 투자법으로 펀드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산 운용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강소장은 특히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버블(거품) 논쟁과 관련, 미국은 1970년대, 일본은 80년대를 기점으로 버블이 붕괴되면서 아파트 가격 폭락현상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붕괴의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1.08명)을 들고 주택 수요는 줄어드는데도 SOC투자를 마친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에 나서면서 주택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의 기본원칙은 한곳에 재산을 집중시키지 않는데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 유동성을 높이라고 말했다.

강소장은 이어 금융자산은 주식 등에 직접투자 하는 방식보다는 적립식이나 포트폴리오 방식의 펀드투자가 좋고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투자성향과 나이, 재

산상태 등을 감안해 잘 짤 것을 권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한 방법으로는 나이를 고려할 경우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의 비율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고 제시했다. 즉 40세의 경우 6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가치투자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한국밸류자산운용 이채원 전무는 '급변하는 투자환경, 성공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식투자 전략으로 장세를 보고 투자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고 밝혔다.

그는 가치평가의 3대 요소는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라고 강조한 뒤 최근의 투자환경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수익으로 자금이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호텔 프리도	객실부/식음료부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8	062-654-9999
정광금속*	시술용/도금품 납품 및 재고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0	062-955-6081
한솔OA가구산업	CAD 디자이너 및 기획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0	062-959-6330
㈜지이오후스	[폭스바겐]자동차 A/S 팀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1	062-351-9500
포토양주	포토샵작업 / 고객상담,촬영보조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12	062-222-0948
신상자동차*	사무관리 및 영업지원/마케팅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3	062-376-2242
토탈웨딩그룹 웨딩인테리어	웨딩매니저/웨딩플래너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14	062-224-5655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15	062-601-7203
리인기획	광고영업,영업관리/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384-6250
㈜건은	광주공항 여객 특수준비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15	02-780-0558
진화엔지니어링*	소방 감리 및 소방시설관리업 경력직	고졸/경력2년	1,600~1,800	06/15	062-261-0941
㈜드림랜드	여행사 내근직(O.P)시업/일본어회화 필수및 경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8	062-227-440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기·업·소·식/

1,000억 규모 사회공헌재단 설립

GS칼텍스 GS칼텍스가 1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공익재단을 설립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GS칼텍스는 7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GS칼텍스 재단(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GS칼텍스 재단은 GS칼텍스(주)가 매년 100억씩 출연해 2015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기본 재산을 출연, 그 수익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기존 재단의 개념으로 보면 2천500억원 수준의 재단과 맞먹는 규모다.

GS칼텍스 재단은 선진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인적육성 사업, 소외계층 복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선진문화국가 건설에 앞장 설 계획이다.

허동수 회장은 "기업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다"면서 "이번 공익재단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해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기업' 만들기 본격 나서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지난 2월 천명만 '아름다운 기업'이란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7대 실천과제'를 선정, 현열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름다운 기업 만들기에 나섰다.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는 ▲지탄받지 않은 경영 ▲협력사 상생경영 ▲장애인 등 소외계층 돕기 ▲현열운동 ▲문화예술 지원 ▲아름다운 노사문화 ▲환경·안전경영 등이다.

이를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세계 현열의 날(14일)을 앞두고 7일부터 14일까지 전 계열사 사업장에서 3천여명의 임직원이 대거 참가하는 '현열운동'에 나선다. 현열량은 100만cc로 추정된다.

또 '협력사와 함께 아름다운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올 초부터 전문 컨설팅회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 상생경영 프로젝트'는 현금결제, 원재고 공동구매 등 구체적인 모습을 담고 오는 8월 선보인다.

C&그룹, 조선업 진출 적극 검토

C&그룹 최근 사명을 변경한 C&그룹(구 세븐마운틴그룹)이 조선업 진출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그룹의 한 임원은 "지난 1월 그룹명을 바꾸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갖춘 중견그룹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조선업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C&그룹은 한진중공업, STX조선 등 국내 7대 메이저 조선업체를 제외한 목포 인근의 중소형 조선소 인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첫 브라운관 두께 30cm씩 깎다

SAMSUNG SDI 삼성SDI가 세계 최초로 브라운관의 두께를 30cm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삼성SDI는 7일 세계 최초로 두께가 29.9cm인 21인치 '울트라 비슬림(Ultra Vixlim)' 브라운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중국 선전공장에서 비슬림 브라운관 양산을 개시한 이후 약 7개월만에 이룬 성과로, 기존 21인치 비슬림 브라운관보다 두께가 5.3cm나 줄었다. 삼성SDI는 오는 3·4분기부터 중국 선전공장에서 이 제품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대 총동창회, 박삼구 회장에 감사패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7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용봉인의 밤' 행사에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조국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남대 총동창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2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남대에 기부,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현정은 현대 회장 '21세기 여성 CEO상'



현대그룹은 현정은 회장이 이화여대가 수여한 '21세기 여성 CEO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현 회장은 이 상을 받은 것은 남성 중심의 경영환경 속에서 현대그룹의 위상을 지켜내고 발전시킨 현 회장의 리더십이 높게 평가된 결과라고 현대그룹은 설명했다. 현 회장은 수상 후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여성 경영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저와 같은 길을 가게 될 후배 경영자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주건설, 용인 공세지구 '피오레' 2,000가구 분양

대주건설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일대 15만8천여평 민간복합단지 '피오레' 아파트 2천가구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용인 공세지구는 대주건설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 개발사업지구로 첨단 벤처단지인 아파트, 유통상업시설, 공원 등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공세지구 아파트는 '피오레' 브랜드를 첫 적용하는 곳으로 지상 15~25층 24개동에 A단지 38~54평형 710가구와 B단지 45~79평형 1천290가구 등 총 2천가구가 이뤄져 있다.

분양가는 평당 1천만~1천400만원 선(예정)이며, 입주후 매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08년 말 예정이

다. 4베이 신평면으로 설계했고, 일부 가구는 양면 개방형으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효과를 높였다. 옥저를 140%, 건폐율 8%의 저밀도로 개발하고 단지내 녹지율도 50%에 달해 환경이 쾌적하다. 중앙테마광장에는 대규모 휘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연회장, 독서실, 실버룸 등을 조성한다. 수인 영동, 용인 보라지구와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수인·기흥 나들목을 타고 서울 등으로 이동하기 좋다.

오는 2008~2009년께 완공되는 분당선 연장 상갈역과 용인 경전철, 용인-양재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문의 031-712-2277.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